

#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성 인식 연구

박 선 희

## Abstract

**Sun Hee Park.** 2013. 6. 30. **A Study on the L2 Grammaticality Perception of 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 *Bilingual Research* 52, 121-148.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how L2 learners of Korean acquire 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s (SVCs). The SVCs in the current study include conjunction sentence and verb combination construction. '-se' insertion and honorific '-(u)si-' addition to V1 were taken to observe how the participants made the grammatical judgment on the SVCs sentences. These three testers displayed how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fuzziness of SVC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73 in total, 30 Korean native speakers(NK), 22 L1 Chinese speakers of Koreans(CK), and 21 L1 English speakers of Koreans(EK). The learners showed the different grammatical judgment on Korean SVCs from NK. CK and EK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artially in their grammatical judgments. The NK's responses indicated that they perceived the syntactic and semantical fuzziness of SVCs. However the L2 learners did not conform the NK's pattern of responses.(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Korean Serial Verb Construction), 접속문(Conjunctive Sentence), 동사결합 구성(Verb Combination Construction), 제2언어 한국어 습득(L2 Acquisition of Korean Language), 문법성 판단(Grammatical judgment),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L1 Chinese speakers of Korean),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L1 English speakers of Korean)

## 1. 서론

본 연구는 구성 상 다단계성(Fuzziness)<sup>1)</sup>을 가지는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성 인식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동사연결 구성은 그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접속 구성, 보조용언 구성, 그리고 합성동사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 구성들은 가장 형태적인 구성으로부터 가장 통어적인 부류로까지 일련의 구조적인 관계를 가진다. 국어학 논의에서는 이들 구성이 가지는 특성들이 접속문, 보조용언 구문, 합성동사 등의 주제로 별도로 구명되었으며 강현화(1998)에서 이들 구성들의 구조적인 관련성이 다단계성으로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구성별로 단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결과<sup>2)</sup>,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동사연결 구성의 여러 유형에 걸쳐 제2언어 학습자들의 습득양상을 관찰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선행연구 가운데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사연결 구성의 형태·통사적 인식에서 한국어 모어화자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숙달도에 따른 변이가 존재하는지 추적하고자 한 박선희(2012)의 연구가 있었으나<sup>3)</sup> 다양한 언어권을 포함

- 
- 1) ‘다단계성(Fuzziness)’은 Kosko(1993)의 개념으로 ‘의미란 다가치적이며 모호한 논리이며 모든 것은 정도성의 문제로서, 하나의 개체는 정도의 단계를 나타내는 몇몇 무리들의 연속적인 연결로 이루어진다’고 한 바와 같다. ‘다단계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Bybee(2010:3~4)의 ‘점층성(Gradience)’를 들 수 있다.
  - 2) 접속문 관련 연구에는 다양한 연결어미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수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에 이현주(2005), 류선영(2007), 송대현(2008), 홍윤기(2012) 등이 있고, 접속문에 나타나는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로 고결(2010), 김수미(2010), 이재성(2011), 이정희(2011), 임지숙(2009) 등의 연구가 있다. 보조용언 관련 연구에는 최해주(2003), 이영(2006), 이종은(2005), 최명선(2009)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러 동사연결 구성에 걸쳐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을 관찰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 3) 중급과 고급의 한국어 숙달도를 가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 대상으로 한 박선희(2012)의 연구 결과,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서 한국어 모

한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언어 현상으로서 다단계성을 보이는 일련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습득에 모어 변인이 존재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인식을 관찰하도록 한다.

## 2.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과 학습자 모어에서의 대응 양상

### 2.1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

한국어의 다단계성은 동일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이 확장되는 현상이나 여러 형태가 유사 의미 기능을 공유할 때 공유 범주 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관계를 통해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연결어미에서는 ‘-어’를 중심으로 한 강현화(1995, 1998), 전은주(1998), 이정현(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전은주(1998)의 연구는 동사연결 구성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로 연결소로서 ‘-고’와 ‘-어’를 취해 용언들과의 공기 제약과 선행 후행 용언의 구성 순서 등을 밝힌 바 있다. 이정현(2008)의 연구는 합성 동사와 보조용언의 구분에 중점을 두어 동사연결 구성 전반을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가 관찰하고자 하는 접속문과 동사결합 구성에 대한 구분에 대한 논의는 강현화(1995, 1998)에서 본격화 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용언 구성과 별도로 동사결합 구성을 분리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sup>5)</sup>.

---

어화자와 학습자들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숙달도 변인에 따른 중간언어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4) 본 연구는 동사연결 구성의 다단계성에 한정하나 다단계성은 어미에 한정되지 않고 조사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조사에 대한 의미적 다단계성은 ‘의미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적 조사 ‘(으)로’가 고영근·구본관(2008:153~154)에서 예시된 바 있다.

동사연결 구성들 가운데 다단계성 관찰을 동일 어미를 공유하는 동사 연결 구성으로 한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어’를 가지는 구성들 중 후행 동사로 ‘주다’를 가진 것들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후행 용언들 가운데 ‘주다’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어 주다’ 구성이 초급에서 제시, 교수되며 [봉사], [수혜] 등의 비교적 투명한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어’와 ‘주다’ 결합에 의한 동사연결 구성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1)a. 영희는 주소를 써서 앤디에게 주었다.
- b. 영희는 동생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 c. 영희는 동생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 d. 민수는 영희의 가방을 들어 주었다.
- e. 민수는 영희를 도와주었다.

(1a)는 접속문 구성, (1b), (1c), (1d)는 소위 보조용언 구성, (1e)는 합성 동사인데 이 가운데 (1e) 합성동사의 예와 (1d) 보조용언 구성을 제외하여 보다 통사적 성격을 지니는 (1a~1c)까지의 동사연결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동사연결 구성들은 선·후행 용언이 선행 논항들과 가지는 통사적 관계와 후행 용언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는데 다음 (2)와 같다<sup>6)</sup>.

- 
- 5) 보조용언 구성과 동사결합 구성의 통사·의미적 차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현화(1998:41~46)를 참고할 수 있다.
  - 6) 다양한 동사연결 구성 유형에 대한 통사적 검증은 여러 연구들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보조용언과 접속문의 차이는 손세모돌(1996), 접속문, 동사결합 구성에 대한 것은 강현화(1995, 1998), 이정현(2008)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박선희(2012: 507-515)를 참고할 수 있다.

- (2)a. 영희는 주소를 써서 앤디에게 주었다.  
 a'. 영희는 주소를 썼다. 영희는 앤디에게 (주소를) 주었다.  
 b. 영희는 동생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다.  
 b'. \*영희는 동생에게 빵을 만들었다. 영희는 동생에게 빵을 주었다.  
 c. 영희는 동생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c'. \*영희는 동생에게 그림책을 읽었다. 영희는 동생에게 그림책을 주었다.  
 d. 민수는 영희의 가방을 들어 주었다.  
 d'. 민수는 영희의 가방을 들었다. \*민수는 영희의 가방을 주었다.

동사연결 구성을 포함하는 각 문장의 두 논항을 선·후행절의 용언을 중심으로 분리했을 때, 접속문을 분할한 (2a')를 제외하고는 비문이 되거나 애초에 동사연결 구성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상실한다. (2b'), (2c')의 경우, 선행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 선행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는 (2d')와 차이를 지닌다. 이들은 강현화(1998:41~46)에서 ‘동사결합 구성’, 이정현(2009)에서 ‘새로운 동사연결 구성’이라고 구분된 것들이다. (2b)와 (2c)의 이들 구성에서 후행동사 ‘주다’는 [전달]의 의미와 더불어 [봉사]의 의미도 가진다. 다만 [전달]의 대상이 되는 (2b)의 ‘빵’이 구체물인 반면 (2c)의 ‘그림책을 읽는 것’이 추상물이라는 점에서 (2b)와 (2c)의 두 유형은 전달물의 ‘추상성’이라는 의미적 차이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된 (2b)와 같은 유형을 ‘동사결합 구성(구체)’, 보다 더 추상적인 대상과 관련된 (2c)와 같은 유형을 ‘동사결합 구성(추상)’으로 나누어 [봉사]의 의미만 부각되는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성과 구분하도록 한다.

위에서 점검한 동사연결 구성의 통사적·의미적 차이는 형태·통사적 실현에서의 차이로 검증되는데, 선행절에 ‘-서’를 개재시키는 것과 선행 용언과 결합하는 주체존대선어말어미 ‘-(으)시-’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두

기제 가운데 ‘-서’는 통어적인 내적 분리성을 드러내고 ‘-(으)시-’는 형태적인 내적 분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sup>7)</sup>.

- (3)a. 영희는 주소를 써서 앤디에게 주었다.  
 b. \*<sup>7/8</sup>영희는 동생에게 빵을 만들어서 주었다.  
 c. \*영희는 동생에게 그림책을 읽어서 주었다.  
 d. \*민수는 영희의 가방을 들어서 주었다.
- (4)a. 영희의 아버지는 주소를 쓰셔서 영희에게 주셨다.  
 b. \*영희의 아버지는 영에게 인형을 만드셔서 주셨다.  
 c. \*영희의 아버지는 영희 동생에게 책을 읽으셔서 주셨다.  
 d. \*영희의 아버지는 영희의 가방을 드셔서 주셨다.

가장 통어적인 동사연결 구성인 접속문 (3a), (4a)는 선행절에 ‘-서’ 개입과 선행절 용언에 ‘-(으)시-’ 결합이 모두 가능하지만 동사결합 구성 (3b), (3c), (4b), (4c)와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한 보조용언 구성 (3d), (4d)에서는 이들의 결합에 제약이 있다. 대체로 ‘-서’의 개재와 ‘-(으)시-’의 경우 모두 접속문을 제외한 동사연결 구성에서 제약을 받는다. 특히, ‘-(으)시-’ 결합의 경우 ‘-서’ 결합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제약을 받는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어(서) 주다’의 동사연결 구성의 통사적·의

- 
- 7) ‘-서’는 선행절 연결어미에 후속하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분리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으)시-’는 선행 용언에 결합하여 용언을 중심으로 한 분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8) 이에 대해서는 박선희(2012:514)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다. ‘-서’가 가지는 동사연결 구성의 분리성과 ‘-(으)시-’의 선행 용언 결합 가능 여부에는 한 국어 모어화자들 내에서도 동사연결 구성에 따라 문장 해석의 차이에 따른 개인어(idiolect)변이의 여지가 있으며 (3b)의 예가 그러하다. (3b)의 후행절에서 ‘빵을’이라는 논항이 삭제된 접속문으로 볼 경우 (3b)는 정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3b)의 ‘주다’에는 동사결합 구성이 가지는 [봉사]의 의미가 없다.

미적 다단계성은 통사적으로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이 선행하는 논항들의 의미역 할당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선행 논항들과의 관계에서 두 용언이 별개인 접속문과 두 용언이 함께 선행 논항에 대한 의미역 할당에 공히 참여하는 동사결합 구성으로 구분된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후행 용언 ‘주다’가 가지는 의미는 접속문에서는 본격적인 본동사로서 [전달]의 의미만을 가지지만 동사결합 구성(구체)과 동사결합 구성(추상)으로 이행하면서 [전달]과 함께 [봉사]의 의미도 함께 가져 구체 의미에서 점차 추상 의미로 전이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통사적·의미적 다단계성과 달리 형태적으로 ‘-서’의 개입과 ‘-(으)시-’의 결합은 다소 차이가 있어 ‘-(으)시-’의 경우 동사결합 구성에서부터 그 결합이 엄격히 제약을 받는 것으로 요약된다.

## 2.2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의 학습자 모어와의 대응 양상

본 장에서는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대응되는 학습자 모어인 중국어와 영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인식에서 모어 변인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언어유형학적으로 고립어인 중국어는 문법적 관계가 주로 어순에 의해 표시되며 단어가 그 어떤 형태상의 변화도 겪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의 연결어미 ‘-어’와 형태적으로 대응이 되는 중국어에서의 언어 형식이나 구조는 부재하다. 한국어의 각 동사연결 구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도록 대응 중국어 문장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a. 민희는 주소를 써서 앤디에게 주었다.
- b. 敏熙-寫-了-地址-給-安迪.
- c. 민희-쓰다-있[∅어서]-주소-주다-앤디

d. 민희는 주소를 썼어서 앤디에게 주었다.

한국어 접속문 (5a)의 연결어미 ‘-어(서)’에 대응이 되는 중국어 형태는 (5b)에서 [Ø어서]로 보인 바와 같이 부재하나 동사의 순차적인 결합으로 한국어 접속문인 (5a)에 대응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5c)는 중국어 대응문인 (5b)를 분석한 것이며 (5d)는 중국어 대당문 (5b)의 의미를 한국어로 다시 직역하여 보인 것이다.

(6)a. 민희는 동생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b. 敏熙-爲-妹妹-做-了-娃娃。

c. 민희-[에게/를 위해]-동생-만들다-있-인형

d. 민희는 동생에게/을 위해 인형을 만들었다.

한국어의 동사결합 구성(구체)인 (6a)에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중국어의 구성은 ‘爲-[전달, 봉사의 대상]-V(이하, 동사)’를 포함한 (6b)와 같다. 이를 분석하여 보이면 (6c)와 같고 (6b)를 다시 한국어로 직역하면 (6d)와 같다.

(7)a. 민희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b. 敏熙-爲-妹妹-讀-了-本-書。

c. 민희-[에게/를 위해]-동생-읽다-있-[단위명사 ‘권’]-책

d. 민희는 동생에게/을 위해 책을 읽었다.

한국어의 동사결합 구성(추상)인 (7a)에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중국어의 구성은 ‘爲-[전달, 봉사의 대상]-V’를 포함한 (7b)와 같다. 이를 형태적으로 분석하여 보이면 (7c)와 같고 (7b)를 다시 한국어로 직역하면 (7d)와 같다. 즉, 한국어의 동사결합 구성(구체)와 동사결합 구성(추상)에



대응이 되는 중국어 문장들에서 문 구조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굴절어인 영어는 용언의 형태 변화로 시제 등 통사 범주를 드러낼 수 있으나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형태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는 언어 형식이나 구조는 부재하다. 동사연결 구성을 포함한 문장들의 영어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8) a. 민희는 주소를 써서 앤디에게 주었어요.  
 b. Minhui wrote the address and gave it to Andy.

한국어 접속문은 (8b)에서와 같이 접속사를 가진 문장에 대응이 되지 만 동사에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 (9) a. 민희는 동생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어요.  
 b. Minhui made her sister a doll.  
 c. Minhui made a doll for her sister.  
 d. \*Minhui made a doll to her sister.

- (10) a. 민희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었어요.  
 b. Minhui read her sister the book.  
 c. Minhui read the book for her sister.  
 d. Minhui read the book to her sister.

한국어 동사결합 구성도 형태적으로 영어에 일대일 대응되기 어려워 ‘주다’가 가지는 [전달]과 [봉사]의 의미가 한 문장에서 형태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결합 구성(구체)와 동사결합 구성(추상)에 대응이 되는 영어 대담문의 구조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동사결합 구성(구체)의 경우 (9a)에 가장 가까운 영어 대담문은 ‘for’를 통해 [봉사]의 의미

가 드러나는 (9c)이다. 그러나 한국어 ‘에게’에 지시적으로 대응이 되는 ‘to’를 가진 (10d)는 비문인데 ‘to’는 선행 동사 ‘make’와 한 문장에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10a) 동사결합 구성(추상)에 대응이 되는 영어의 대당문은 ‘to’를 가진 (10d)가 가장 가깝다<sup>9)</sup>. 즉 한국어 동사결합 구성의 영어 대당문은 동사연결 구성의 의미적 추상성, 즉 [전달]의 대상이 구체물인지 추상물인지 여부에 따라 통사적인 차이를 보인다. ‘책을 읽어 주는 행위’와 같은 추상물은 영어 대당문에서 ‘전달’의 대상으로 ‘make’과 함께 서술어로 통합될 수 있으나, ‘인형’과 같은 구체물은 ‘make’과 ‘to’를 동반하여 ‘전달’의 대상으로 한 서술어로 통합될 수 있다. 영어에서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형태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는 형태적 일치성(morphological congruency)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어 동사결합 구성의 의미적 추상성이 영어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달리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의미적으로 대응이 되는 중국어와 영어의 문장은 한국어의 연결어미 ‘-어’와 같은 형태를 실현시키지 않고, 물론 ‘-서’나 ‘-(으)시-’에 대응되는 형태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 동사결합 구성에 대한 영어 대응문의 구조가 달리 실현되는 바, 중국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동사결합 구성의 의미적 다단계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습자들의 모어가 가지는 언어유형학적 특성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용언의 활용이 부재한 반면, 굴절어인 영어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접속문의 형태를 조정하거나<sup>10)</sup> 시제형태소가 용언에 결합하여 용언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등의 변용이 가능하다. 즉, 영어는

9) (10c)의 경우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a)는 동생에게 낭독을 해 준 것이지만 (10c)의 ‘read’는 낭독 또는 (책을 집필한 동생을 위해) 민회가 혼자서 읽은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10) 영어에서 접속문의 경우 동사의 활용을 분사로 바꾸어서 접속사를 대신하는 통사적 장치가 그러하다.

두 문장이 결합할 때 용언을 중심으로 하여 질 경계에 대한 인식이 형태·통사적으로 실현된다. 용언의 형태적 활용과 이를 통해서 접속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분리하는 통사적 실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영어 모어화자들이 중국어 모어화자들에 비해 한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의 형태 통사적 분리성에 더 익숙할 수 있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어와 영어를 모어로 하는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인식을 살피기 위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인식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사용과 차이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인식에 학습자의 모어 변인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동사연결 구성 유형별로 제작한 문장들에 대한 두 집단의 문법성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연구문제 2는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중국어 모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학습자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동사연결 구성 유형별 문장들에 대한 두 집단의 문법성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두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연구의 방법과 과정을 실험 참여자, 실험 도구, 실험 절차와 자료 분석 방법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 3.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총 73명으로 성인 한국어 모어화자 30명과 성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43명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22명, 영어권 학습자가 21명으로 서울 소재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이들이었다.

실험에 참여하는 두 언어권 학습자들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숙달도 검사지를 구성하였는데 TOPIK 19회부터 21회까지 중·고급 문법 13개 문항을 추출하여 중급 문제에는 1점, 고급 문제에는 2점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숙달도 검사지의 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alpha$ )는 .627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중국어권 학습자 22명의 숙달도 시험 평균은 8.909, 표준편차는 3.323, 영어권 학습자 21명의 숙달도 시험 평균은 9.429, 표준편차는 4.044이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유의확률 .252로 두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 두 집단의 한국어 숙달도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461, 유의확률은 .64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숙달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3.2 실험 도구

분석 대상이 된 실험 문항은 총 9개 문항으로 ‘-서’ 개입, ‘-서’의 비개입, 선행 용언에 ‘-(으)시-’가 결합한 문항의 세 문항을 각 동사연결 구성별로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sup>11)</sup>.

11) 본 연구의 실험 도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박선희(2012)에서 사용한 문항들에서 보조용언 구성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표 1> 문항 구성표

동사연결 구성	형태·통사적 실현	제시 문장
접속문	‘-서’ 없음 ‘-서’ 결합 ‘-(으)시-’ 결합	민희는 전화번호를 써 앤디에게 주었어요. 민희는 주소를 써서 앤디에게 주었어요. 민희의 아버지는 주소를 쓰셔서 민희에게 주셨어요.
동사결합 구성(구체)	‘-서’ 없음 ‘-서’ 결합 ‘-(으)시-’ 결합	민희는 동생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어요. 민희는 앤디에게 김밥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앤디의 어머니는 앤디에게 쿠키를 만드셔서 주셨어요.
동사결합 구성(추상)	‘-서’ 없음 ‘-서’ 결합 ‘-(으)시-’ 결합	영주는 민희에게 ‘Yesterday’를 불러 주었어요. 민희는 앤디에게 노래를 불러서 주었어요. 아버지는 동생에게 노래를 부르셔서 주셨어요.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접속문, 동사 ‘주다’가 [봉사]와 더불어 구체물의 [전달]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결합 구성(구체), 추상물의 [전달]을 의미하는 동사결합 구성(추상) 등, 각 유형별로 3개씩 총 9개의 문항을 무작위로 섞어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공했다. 한국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도구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고 감수를 거쳐 제작하였다.

1. 이 설문지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을 적어주세요  
(1) 시작 시간 \_\_\_\_\_ (2) 끝난 시간 \_\_\_\_\_

2. 다음 지시 사항을 잘 읽고 시작해 주세요.

(1) 그림의 상황과 문장을 읽고 밑줄 그어진 부분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2) 옆 [보기]와 같이 문장의 문법성에 따라 √ 표시하세요. 문장이 맞으면 ○ 칸에 √ 표시하고 틀리면 × 칸에 √ 표시하세요.

(3) 만약 문장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부분에 등그림으로 표시하고 ⇒ 다음에 틀린 부분을 맞게 고쳐 주세요.


행희는 오늘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학교가 않어요.

○ × √

! 문장이 틀릴 경우 맞는 답을 써 주세요.

⇒ 예

5.



민희가 가방이 많아요.  
그래서 민희의 아버지는 큰 가방을 드시 주셨어요.

○ ×

! 문장이 틀릴 경우 맞는 답을 써 주세요.

⇒

<그림 1> 실험 도구의 예

각 문항별로 실험 참여자들에게 문법성 판단을 내리도록 해서 정문은 ‘○’, 비문은 ‘×’로 표기하도록 했고, 비문으로 판단한 경우 오류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본 연구의 연구도구의 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 (Cronbach  $\alpha$ )는 .625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3.3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예시 문항을 들어 연구 도구인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답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본 실험은 개인 정보 수집 및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 사전 숙달도 검사,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실험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약 30-35분이 소요되었다.

### 3.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문법성 판단 정보와 오류 수정 내용이다. 문법성 판단 정보의 경우 정답에 ‘1’점, 오답에 ‘0’점을 부여하여 처리했다. 오류 수정의 내용은 실험 참여자들의 문법성 판단이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참고했다. 본 연구에서 채용한 통계분석은  $t$  검정과 빈도분석이다. 연구문제 1과 2에서 확인하고자 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간, 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와 영어권 학습자 간의 문법성 판단의 차이를  $t$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빈도분석은 연구문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사연결 구성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차이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 활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들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동사연결 구성 문항들에 대한 문법성 판단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의 동사연결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동사연결 구성 유형별 문법성 판단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동사연결 구성 유형	집단(명)	평균	표준편차	<i>t</i>	p
접속문	모어화자(30)	2.967	.0334	2.961*	.004
	학습자(43)	2.745	.4415		
동사결합 구성 (구체)	모어화자(30)	2.500	.5086	4.091*	.000
	학습자(43)	1.861	.7426		
동사결합 구성 (추상)	모어화자(30)	2.967	.1826	4.024*	.000
	학습자(43)	2.559	.6287		

\*  $p < .05$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접속문 문항들에 대한 문법성 판단의 점수 차이는 .2225로 그다지 크지 않으나, 두 집단의 문법성 판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2.961, 유의확률은 .004로 유의수준 .05에서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접속문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동사결합 구성(구체), 동사결합 구성(추상)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문항들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연결 구성들에 대한 판단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들의 문법성

판단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표 3>은 각 동사연결 구성별로 실험 참여자들의 문법성 판단을 빈도분석한 것이다.

<표 3>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문항별 응답 빈도분석

문법성 판단		‘-어’		‘-서’ 개재		‘-(으)시-’ 결합	
		○	×	○	×	○	×
접속문*	모어화자 (30)	13 (43.3%)	17 (56.7%)	29 (96.7%)	1 (3.3%)	10 (33.3%)	20 (66.7%)
	학습자 (43)	10 (23.3%)	33 (76.7%)	32 (74.4%)	11 (25.6%)	22 (51.2%)	21 (48.8%)
동사결합 구성 (구체)*	모어화자 (30)	30 (100.0%)	0 (0.0%)	15 (50.0%)	15 (50.0%)	0 (0.0%)	30 (100.0%)
	학습자 (43)	37 (86.0%)	6 (14.0%)	15 (34.9%)	28 (65.1%)	15 (34.9%)	28 (65.1%)
동사결합 구성 (추상)*	모어화자 (30)	29 (96.7%)	1 (3.3%)	0 (0.0%)	30 (100.0%)	0 (0.0%)	30 (100.0%)
	학습자 (43)	38 (88.4%)	5 (11.6%)	3 (7.0%)	40 (93.0%)	11 (25.6%)	32 (74.4%)

\*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 집단의 문법성 판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사연결 구성임.

각 동사연결 구성별로 ‘-서’ 결합 응답에 대한 내용을 <표 3>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속문의 경우,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서’가 결합한 ‘-어서’형 접속문을 정문으로 판단한 빈도가 전체 응답 30명 가운데 29명(이하 29/30, 백분율로는 96.7%)로 높았던 반면, 학습자들의 경우는 이에 대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체 23/43명(74.4%)에 그쳤다. 한편 ‘-서’를 개재하지 않은 ‘-어’형 접속문에 대한 정문 판단은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13/30(43.3%)이었던 데 반해 학습자들의 경우는 10/43(23.3%)에 그쳤다.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어서’형 접속문에 대해서 거의 전원이 문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어’형 접속문에 대해서 수용도가 낮았던 데 반해, 학습자들의 경우는 ‘-어서’형을 정문이라고 판단한 비율이 한국어 모어화자에 비해 낮고 ‘-어’형을 정문이라고 판단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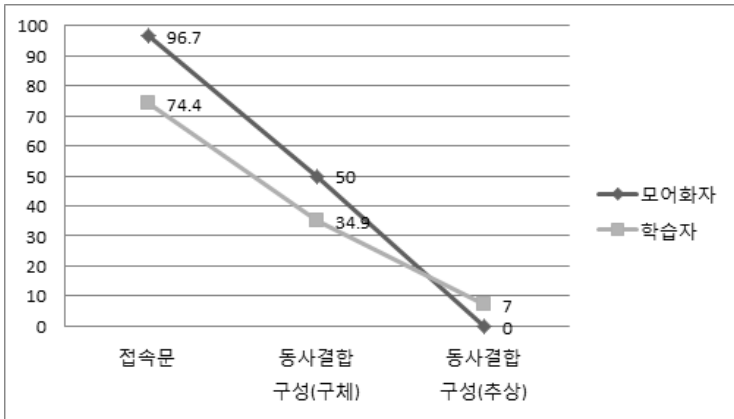


았다.

동사결합 구성(구체) 관련 문항들에서 정문인 ‘-어’형 문장에 대해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전원이 문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학습자들의 경우는 6/43(14.0%)이 이를 비문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선행 용언에 결합한 ‘-(으)시-’의 개재에 대해서도 한국어 모어화자는 전원이 비문으로 판단을 한 데 반해 학습자들의 경우는 15/43(34.9%)이 정문으로 판단을 해 한국어 모어화자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동사결합 구성의 선·후행 두 용언을 보다 분리적인 것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동사결합 구성(추상) 관련 문항들에서도 학습자들은 동사연결 구성의 두 용언을 분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서’ 결합 문장이나 ‘-(으)시-’ 결합 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단을 정문이라고 한 비율이 높아 한국어 모어화자의 판단과 내용을 달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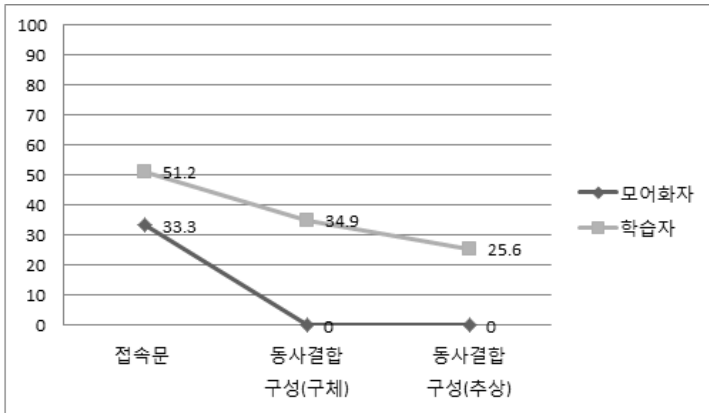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들의 문법성 판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학습자들이 동사연결 구성에서 ‘-서’ 개입이나 ‘-(으)시-’ 결합에 대한 문법성 판단을 한국어 모어화자와 달리한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에, 통어적인 구성을 가진 접속문으로부터 덜 통어적인 구성인 동사결합 구성의 순으로 각 동사연결 구성 유형별 ‘-서’ 결합 문장들을 정문으로 판단한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들의 응답 빈도를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가 ‘-서’ 결합 동사연결 구성을 정문으로 판단한 백분율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접속문 29/30(96.7%)-동사결합 구성(구체) 15/30(50.0%)-동사결합 구성(추상) 0/30(0.0%)의 순서로 동사연결 구성의 통사적·의미적 다단계성을 형태·통사적으로 드러내었다. 학습자들의 경우도 각 동사연결 구성에 대해 접속문 32/43(74.4%)-동사결합구성(구체) 15/43(34.9%)-동사결합 구성(추상) 3/43(7.0%)으로 동사연결 구성이 가지는 통사적·의미적 다단계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의미적으로 가장 추상적인 동사결합 구성(추상)에서 한국어 모어화자들과 달리 ‘-서’ 결합을 허용하여 차이를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각 동사연결 구성별로 선행 용언과 결합한 ‘-(으)시.’ 개재 문장에 대한 응답 내용을 도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가 선행 용언에 ‘-(으)시-’가 결합한 동사연결 구성을 정문으로 판단한 백분율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선행 용언에 ‘-(으)시-’가 결합한 각 동사연결 구성에 대해 접속문 10/30(33.3%)-동사결합 구성(구체) 0/30(0.0%)-동사결합 구성(추상) 0/30(0.0%)의 순으로 동사연결 구성의 통사적·의미적 다단계성을 형태·통사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에 반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접속문 22/43(51.2%)-동사결합 구성(구체) 15/43(34.9%)-동사결합 구성(추상) 11/43(25.6%)으로 동사연결 구성이 가지는 통사적·의미적 다단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되 한국어 모어화자들과 달리 동사결합 구성에서 ‘-(으)시-’의 결합을 높은 비율로 허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개재 동사연결 구성에서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접속문에서 동사결합 구성(구체)에서 ‘-서’의 개입을 허용하였으나, 보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결합 구성(추상) 문항들에서는 ‘-서’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학습자들은 접속문과 나머지 구성들에서 ‘-서’ 개입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았다. ‘-(으)시-’가 선행 용언에 결합된 동사연결 구성 문항들에서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접속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사연결 구성들에서 ‘-(으)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반면, 학습자들은 높은 비율로

‘-(으)시-’가 개재한 문항들을 정문으로 판단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동사 연결 구성을 분석적으로 보아 ‘-서’ 개입 문항들과서와 마찬가지로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을 분리적인 단위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사연결 구성이 접속문에서 동사결합 구성으로 이행하면서 ‘-서’나 ‘-(으)시-’에 의한 분리성을 허용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한 것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 집단 모두에게서 유사한 유형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문법성 판단이 유의한 차이를 가진 것은 각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분리적 인식의 수위가 한국어 모어화자에 비해 학습자들에게서 높았기 때문이다.

#### 4.2 학습자 모어에 따른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동사연결 구성 문항들에 대한 문법성 판단은 동사결합 구성들에서 나타났는데 두 집단의 문법성 판단에 대한  $t$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동사연결 구성 유형별 문법성 판단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동사연결 구성 유형	집단(명)	평균	표준편차	$t$	$p$
접속문	영어권(21)	2.714	.4629	-430	.670
	중국어권(22)	2.773	.4289		
동사결합 구성 (구체)	영어권(21)	1.629	.5896	-2.173*	.036
	중국어권(22)	2.090	.8112		
동사결합 구성 (추상)	영어권(21)	2.762	.4365	2.190*	.035
	중국어권(22)	2.364	.7267		

\*  $p < .05$

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 집단은 동사결합 구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사결합 구성(구체)에서 영어권 학습자들의 문법성 판단 점수는 1.629, 표준편차는 .5896이었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는 문법성 판단 점수는 2.090, 표준편차는 .8112였다. 두 집단의 문법성 판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2.173, 유의확률은 .03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학습자 집단 간 동사결합 구성(구체)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사결합 구성(추상)에서도 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학습자 집단 간의 문법성 판단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동사결합 구성(구체)와 동사결합 구성(추상)을 중심으로 문항별 문법성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문항별 응답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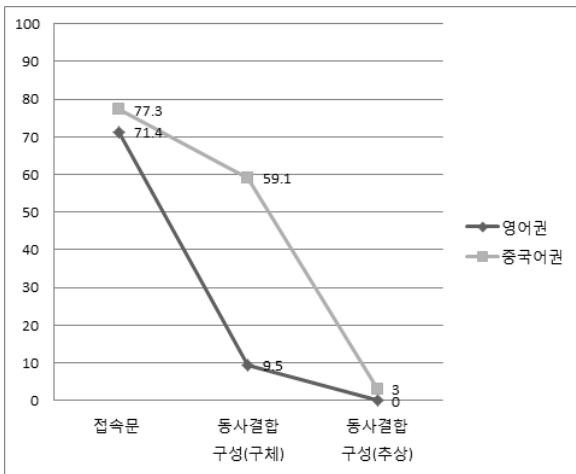
문법성 판단		'-어'		'-서' 개재		'-(으)시-' 결합	
		○	×	○	×	○	×
접속문	영어권 (21)	2 (9.5%)	19 (90.5%)	15 (71.4%)	6 (28.6%)	12 (57.1%)	9 (42.9%)
	중국어권 (22)	8 (36.4%)	14 (63.6%)	17 (77.3%)	5 (22.7%)	10 (45.5%)	12 (54.5%)
동사결합 구성 (구체)*	영어권 (21)	18 (85.7%)	3 (14.3%)	2 (9.5%)	19 (90.5%)	7 (33.3%)	14 (66.7%)
	중국어권 (22)	19 (86.4%)	3 (13.6%)	13 (59.1%)	9 (40.9%)	8 (36.4%)	14 (63.6%)
동사결합 구성 (추상)*	영어권 (21)	19 (90.5%)	2 (9.5%)	0 (0.0%)	21 (100.0%)	3 (14.3%)	18 (85.7%)
	중국어권 (22)	19 (86.4%)	3 (13.6%)	3 (13.6%)	19 (86.4%)	8 (36.4%)	14 (63.6%)

\* 영어권 학습자 집단과 중국어권 학습자 집단의 문법성 판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동사연결 구성임.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동사결합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이들 구성에 대한 ‘-서’개입이나 ‘-(으)시’ 결합을 허용한 빈도가 높은 데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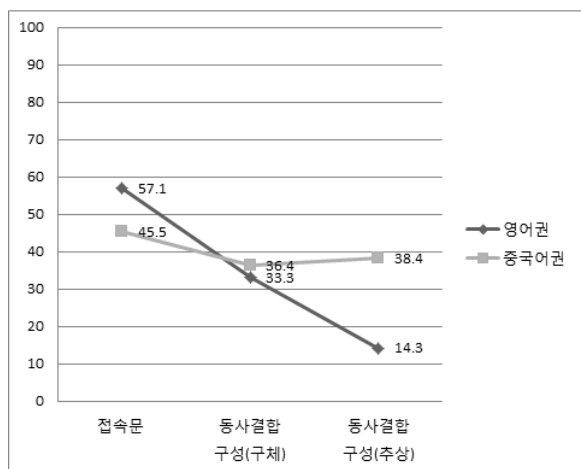
동사결합 구성별로 ‘-서’ 개입 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사결합 구성(구체)에서 영어권 학습자들은 2/21(9.5%)만이 이를 허용한 데 비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13/22(59.1%)이 이를 허용해 큰 차이를 보였다. 동사결합 구성(추상)에서도 영어권 학습자들은 ‘-서’의 개입을 전원 불허한 데 반해, 중국어권 학습들은 3/22(13.6%)가 이를 허용해 격차를 보였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가 ‘-서’ 결합 동사연결 구성을 정문으로 판단한 백분율

한편, 동사결합 구성별로 선행 용언에 ‘-(으)시-’가 결합한 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사결합 구성(구체)에서 두 언어권 집단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동사결합 구성(추상)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으)시-’의 개입을 영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22.1% 더 높은 비율로 허용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가 ‘-(으)시-’ 결합 동사연결 구성을 정문으로 판단한 백분율

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은 ‘-(으)시-’ 결합에 대한 두 학습자 집단의 허용 여부의 차이는 동사연결 구성의 다단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게 한다. 영어권 학습자들과 달리,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으)시-’ 결합에 대한 높은 수용도는 접속문, 동사결합 구성(구체), 동사결합 구성(추상)에 걸쳐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사연결 구성이 가지는 통사의미적인 다단계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여 모든 동사연결 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별 문법성 판단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 이러한 차이는 동사연결 구성에 ‘-서’가 개입되거나 선행 용언에 ‘-(으)시-’가 결합하는 문장들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허용도가 높았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형태·통사적 분리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을 한국어 모어화자들에 비해 분리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화자들은 동사연결 구성에 나타나는 형태적 분리를 접속문에 한정하여 드러냈던 데 비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분리적인 인식을 접속문에서만 아니라 다른 동사연결 구성에서도 나타내었다.

한편,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의 차이는 동사결합 구성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영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동사연결 구성을 형태·통사적으로 보다 더 분리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분석적인 인식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분리를 드러내는 ‘-서’ 개입에서도 나타났지만 용언을 중심으로 한 분리를 나타내는 ‘-(으)시-’ 결합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졌다.

동사결합 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두 모어가 가지는 언어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접속문이나 보조용언 구성에 비해 낮은 통사 구조인 동사결합 구성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대하여 모어에서 대당문이 다른 통사 구조로 실현되는 영어권 학습자들은 이들 두 구성이 가지는 통사의미적 차이를 형태·통사적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이 수월했을 것이다. 아울러 용언 활용으로 문법 범주를 드러내는 것에 익

12) 일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을 살핀 박선희(2012)의 연구 결과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와 일본어권 학습자 집단이 동사결합 구성(구체)과 보조용언 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접속문과 동사결합 구성(추상)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서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화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중국어권과 영어권이 모든 동사연결 구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졌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세 언어권을 자료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이 추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숙한 영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동사결합 구성(추상)의 선행 용언에 ‘-(으)시-’가 결합하여 선·후행 용언이 한 단위로서 통사적·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는 두 가지 동사결합 구성에 대당되는 중국어 문장이 통사적으로 차이를 가지지 않고 용언 활용으로 통사·의미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바, 동사연결 구성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분석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는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분석적인 인식이 결과적으로는 문법적 정확성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문법성 판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을 관찰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접속문, 보조용언 구성이 한국어 교육의 초급에서 교수 항목으로 제시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사결합 구성의 형태·통사적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교수를 보다 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모어에 따라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는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이 가지는 용언 중심의 분리성의 차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어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습득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다단계성을 가지는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인식이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성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언어권에 따라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을지를 영어권 학습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관찰했다.

연구 결과,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모든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고급 숙달도에 이

른 학습자들도 미처 이들 구성의 형태·통사적 실현을 온전히 습득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모어에 따른 문법성 인식은 동사결합 구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접속문과 보조용언 구성의 중간적인 이 구성에서 학습자 모어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동사결합 구성의 두 가지 유형에 대응되는 학습자 모어의 대담문이 통사적인 차이를 가지고 실현되는지 여부와 학습자 모어에서 용언의 활용에 의해 문법적 기능이 적극 실현되는지 여부가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동사결합 구성에 대응하는 문장들에서 통사적 차이가 부재하고 용언의 활용이 없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경우, ‘-(으)시-’ 결합과 관련하여 용언 중심의 형태적 인식에서 분리적인 태도를 가졌다.

이와 같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분리적인 인식은 결과적으로는 문법적 정확성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문법성 판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을 확인했다. 이에 이들 동사연결 구성의 통사적·의미적 특성과 형태·통사적 실현 양상에 대한 교수가 보다 명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다.

본 연구는 동사연결 구성들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법성 판단을 살펴 통사·의미적으로 다단계적인 범주에서 제2언어 습득 양상을 관찰하고자 했다. 향후 후속 연구들에서 통사·의미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다양한 문법 형태와 범주를 대상으로 제2언어 한국어 습득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1995). 동사 연결의 단단계 구조, <연세어문학>. 제27권,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1쪽~247쪽.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고결(2010). 한국어 연결어미 ‘-고’에 대한 연구: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김수미(2010). 여성결혼이민자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선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201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동사연결 구성 습득 연구, <새국어교육> 제9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503쪽~535쪽.
- 손세모(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송대현(2008). 한국어 연결어미 ‘-(으)ㄴ/는데’ 교육 방안 연구, <어문논총> 24집, 동서어문학회. 169쪽~193쪽.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박이정.
- 이기동(1979). 주치의 문법, <한글> 166, 한글학회. 159쪽~187쪽.
- 이영(200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성(2011). 중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속접속문 구성 오류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21,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18쪽~140쪽.
- 이정현(2008). 동사연결 구성의 경계에 있는 중간 범주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73쪽~191쪽.
- 이정희(2011). 외국인의 한국어 구어 발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사용 양상 연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호, 이중언어학회. 189쪽~207쪽.
- 이종은(2005).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존용언 표현의 어휘항목 선정. 이중언어학, 28호, 이중언어학회. 281쪽~308쪽.
- 이현주(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숙(2009).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아서/어서’에 대한 오류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은주(1994). 국어 동사결합의 공기제약과 구성순서, <한국어문교육>, 7호,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39쪽~62쪽.
- 최명선(2009).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해주(2003).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방안 연구: 의미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윤기(2012).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복합문 구성방안 연구-종결표현에 따른 연결표현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0권, 이중언어학회. 295쪽~327쪽.

Bybee, J. (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New York: University Press.

Kosko, B.(1993), *Fuzzy thinking, The New Science of Fuzzy Logic*, London: Flamingo (Harper Collins).

박선희(Park, Sun Hee)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전화번호: 02-3277-2106

전자우편: sunheepark@ewha.ac.kr

접수일자: 2012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13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17일